

## 일부 여대생들의 음주폐해 인식도 관련 요인

조현태\*·문동철\*\*†

\*동아보건대학교 응급구조과, \*\*김해대학교 물리치료과

### Factors and Cognition about Harmful Use of Alcohol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Hyeon Tae Jo\*·Dong Chul Moon\*\*†

\*Department of Emergency, Dong A College of Health

\*\*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Gimhae College

####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cognition about harmful use of alcohol among female university students.

**Methods:** The data were collected by questionnaire from the 389 female university students. The analysis of the data was used by SPSS program(ver. 18.0). Technical statistics analysis was used i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drinking related characteristics and drinking related cognition of objects. Logistic regression was used in factors affecting on cognitive degree of drinking evil.

**Results:** Cognitive degree of drinking evil was low as more drinking related outlay expenses and was low as more moderation in drinking and publicity experience.

**Conclusions:** University and the government authorities must consider the seriousness and importance of the problem and enforce moderation in drinking and publicity for female university students and develop education program and prepare the publicity material.

**Key words:** Drinking, Female university students, Harmful use of alcohol, Cognition

---

접수일 : 2017년 7월 14일, 수정일 : 2017년 11월 24일, 채택일 : 2017년 12월 29일

교신저자 : 문동철(50811, 경상남도 김해시 삼안로 112번길 198)

Tel: 055-320-1734 Fax: 055-336-6251 E-mail: ptmdc@kimhae.ac.kr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음주폐해란 음주로 인한 폐단 때문에 생기는 해로운 일을 말하는데 음주폐해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Room 등, 2005). 음주폐해는 음주를 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 직장동료, 때로는 전혀 낯선 타인에게까지 신체적 혹은 정신적 폐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줄 수 있으며, 공공장소나 지역사회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공공 건강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Hope, 2014; Karriker-Jaffe 등, 2014; Laslett 등, 2011; Room 등, 2010).

여성은 생물학적 차이로 인해 남성보다 체내 수분이 적고 지방이 많아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Pfefferbaum 등, 2001; Schweinburg 등, 2003) 더 빨리 취하며 더 쉽게 중독되는 등 생물학적으로 남성에 비해 알코올에 더 취약하다(Angove 등, 2003; Homila 등, 2005). 따라서 여성은 남성보다 더 늦게 음주를 시작하지만 음주시작에서 음주로 인한 폐해를 겪게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고, 같은 음주량이지만 남성보다 신체적 피해가 훨씬 크며 더 빨리 만성적인 영향을 입게 된다(Angove 등, 2003; Breinza 등, 2002; Kinney, 2003). 이와 같이 여성 음주는 남성음주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전현진과 정슬기, 2008).

여대생의 음주문제가 심각해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 내에서도 이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그로 인한 음주폐해로 인한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여대생들의 절주를 위한 정책방안과 절주캠페인 전략수립이 절실히 되고 있다(심성욱 등, 2009).

선행연구에서 김영복(2014)의 우리나라 대학생

의 지역별 음주 특성 분석, 김승대 등(2016)의 일부 대학생들의 음주량에 미치는 영향과 절주방안, 최정화 등(2016)의 사회적 규범 인식, 평가 성향, 음주의 사회적 편익인식이 대학생들의 음주행위에 미치는 영향, 손애리(2014)의 여대생의 음주와 성역할고정관념이 성경험에 미치는 영향, 조현태(2014)의 일부 지역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음주행태와 그 영향 요인, 조현태(2015)의 일부 도시 지역 간호 대학생들의 음주폐해 인식도, 양광식(2014)의 대학생들의 음주 및 주취폭력 실태에 관한 연구, 김정애(2014)의 대학생들의 문제음주 관련 요인 분석 등에서는 대학생의 음주특성, 음주실태, 음주행동, 음주행태, 문제음주와 같이 대학생들의 음주폐해에 관한 연구나 특히 여대생들에 대한 음주폐해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성의 음주가 증가하고 있고, 여대생의 음주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대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여대생들의 음주에 관한 연구는 여대생의 음주폐해가 삶과 사회에 미치는 결과를 이해하고, 여대생의 음주폐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성별 차이에 민감한 예방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여대생들만을 대상으로 음주폐해에 대해 파악하고자 조사를 실시하였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여대생들의 음주폐해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대생들의 일반적 특성 및 음주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여대생들의 음주관련 인식을 파악한다.

셋째, 여대생들의 특성에 따른 음주폐해 인식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넷째, 여대생들의 음주폐해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및 연구기간

#### 1) 연구대상

S시와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 인접한 N시에 있는 대학 중에서 남녀공학 4개 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 1, 2, 3, 4학년 389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전원 동의하에 이루어졌다. 연구의 내용과 목적, 개인 비밀유지, 조사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이 연구에 동의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 2) 연구기간

2017년 4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pilot test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자료입력과 분석은 2017년 5월 22일부터 6월 7일까지 이루어졌다.

### 2. 조사방법

전체 여학생 1, 2, 3, 4학년 1,412명 중 조사에 응한 389명을 전원 동의하에 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대학을 직접 방문하여 일대일 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하기 전에 ‘음주폐해’, ‘음주폐해 인식도’ 등의 용어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한 다음 이루어졌다.

### 3. 연구도구

음주폐해 인식도와 그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최은진(2008)의 음주관련 인식과 조현태(2015)

의 음주폐해인식도와 영향요인을 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나이, 학년, 음주관련 특성으로는 음주 시 몇 차까지, 월 용돈, 월 음주관련 지출 비용, 절주교육 및 홍보경험을 포함시켰다. 대상자의 음주관련 인식으로는 음주에 대한 후회, 음주 후 실수, 부모님의 음주문제, 부모 중 음주문제가 있는 분, 음주폐해 감소 학교노력 만족도, 음주폐해 인식도로 구성하였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음주폐해 인식도에는 학년, 음주 시 몇 차까지, 월 음주관련 지출 비용, 절주교육 및 홍보경험, 음주에 대한 후회, 음주로 인한 실수, 부모님의 음주문제, 음주폐해 감소 학교노력 만족도를 포함시켰다.

음주폐해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음주 시 몇 차까지, 절주교육 및 홍보 힘, 음주에 대한 후회, 음주로 인한 실수, 부모님의 음주문제를 포함시켰다.

### 4. 자료 분석

통계분석은 SPSS 프로그램(ver. 18.0)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및 음주관련 특성과 대상자의 음주관련 인식은 빈도분석을 하였고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음주폐해 인식도는 교차분석을, 음주폐해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일반적 특성 및 음주관련 특성

대상자인 여대생들의 학년은 1학년이 98명(25.2%), 2학년이 145명(37.3%), 3학년이 61명(15.7%), 4학년이 85명(21.9%)였다. 음주 시 몇 차까지는 1차가 218명(56.0%), 2차가 86명(22.1%)의 순이었다.

월 용돈은 20만원이 205명(52.7%)로 가장 많았고, 25만원 73명(18.8%), 30만원 37명(9.5%), 10만원 24명(6.2%), 15만원 13명(3.3%), 40만원과 50만원이 12명(3.1%)의 순이었다. 음주관련 지출 비용은 5만원 미만이 352명(90.5%)로 가장 많았고, 5만원

에서 10만원 미만이 25명(6.4%), 10만원 이상이 12명(3.1%)의 순이었다. 절주교육 및 홍보경험은 없음이 352명(90.5%)로 있음의 37명(9.5%)보다 유의하게 많았다<표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음주관련 특성

특성	구분	N	%
학년	1학년	98	25.2
	2학년	145	37.3
	3학년	61	15.7
	4학년	85	21.9
음주 시 몇 차까지	마시지 않음	85	21.9
	1차	218	56.0
	2차	86	22.1
월 용돈	10	24	6.2
	15	13	3.3
	20	205	52.7
	24	12	3.1
	25	73	18.8
	30	37	9.5
	35	1	0.3
	40	12	3.1
	50	12	3.1
	음주관련 지출 비용 (만원)	5 미만	352
5~10 미만		25	6.4
10 이상		12	3.1
절주교육 및 홍보경험	있음	37	9.5
	없음	352	90.5

## 2. 대상자의 음주관련 인식

음주에 대한 후회는 '있음'이 195명(50.1%), '없음'이 194명(49.9%)였다. 음주 후 실수는 '없음'이

242명(62.2%)로 '있음' 147명(37.8%)보다 많았다. 부모님의 음주 문제는 '없음'이 315명(81.0%)로 '있음' 74명(19.0%)보다 많았다. 부모 중 문제가 있는 분은 '부'가 62명(100.0%)였다. 음주폐해 감

소 학교노력 만족도는 '불만족'이 367명(94.3%)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 12명(3.1%), 만족이 10명

(2.6%)였다. 음주폐해 인식도는 '그렇다'가 305명(78.4%), '그렇지 않다'가 84명(21.6%)였다<표 2>.

<표 2> 대상자의 음주관련 인식

특성	구분	N	%
음주에 대한 후회	있음	195	50.1
	없음	194	49.9
음주 후 실수	있음	147	37.8
	없음	242	62.2
부모님의 음주문제	있음	74	19.0
	없음	315	81.0
부모 중 문제가 있는 분	부	62	100.0
	모	0	00.0
음주폐해 감소	만족	10	2.6
학교노력 만족도	보통	12	3.1
	불만족	377	94.3
음주폐해	그렇다	305	78.4
인식도	그렇지 않다	84	21.6

### 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음주폐해 인식도의 차이

음주폐해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음주폐해 인식도는, 학년별로는 1학년이 '그렇다'가 98명(66.2%), '그렇지 않다'가 50명(33.8%)였고, 2학년이 '그렇다'가 133명(91.7%), '그렇지 않다'가 12명(8.3%), 3학년이 '그렇다'가 25명(41.0%), '그렇지 않다'가 36명(59.0%), 4학년이 '그렇다'가 49명(57.6%), '그렇지 않다'가 36명(42.4%)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01$ ). 음주 시 몇 차까지는 마시지 않음이 '그렇다'가 61명(71.8%), '그렇지 않다'가 24명(28.2%), 1차는 '그렇다'가 194명(89.0%), '그렇지 않다'가 24명(11.0%), 2차는 '그렇다'가 50명(58.1%), '그렇지 않다'가 36명(41.9%)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01$ ). 월 음주관련 지출 비용은 5만원 미만이 '그렇다'가 292명(83.0%), '그렇지 않다'가 60명(17.0%), 5만원에서 10만원 미만이 '그렇다'가 13명(52.0%), '그렇지 않다'가 12명(48.0%), 10만원 이상이 '그렇다'가 0명(00.0%), '그렇지 않다'가 12명(100%)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01$ ). 절주교육 및 홍보 경험은 있음이 '그렇다'가 25명(67.6%), '그렇지 않다'가 12명(32.4%), 없음이 '그렇다'가 280명(79.5%), '그렇지 않다'가 72명(20.5%)였다. 음주에 대한 후회는 있음이 '그렇다'가 135명(69.2%), '그렇지 않다'가 60명(30.8%), 없음이 '그렇다'가 170명(87.6%), '그렇지 않다'가 24명(12.4%)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01$ ). 음주로 인한 실수는 있음이 '그렇다'가 111명(75.5%), '그렇지 않다'가 36명(24.5%), 없

음이 '그렇다'가 194명(80.2%), '그렇지 않다'가 48명(19.8%)였다. 부모님의 음주문제는 있음이 '그렇다'가 50명(67.6%), '그렇지 않다'가 24명(32.4%), 없음이 '그렇다'가 255명(81.0%), '그렇지 않다'가 60명(19.0%)였다. 음주폐해감소 학교노력만족도

는 만족은 '그렇다'가 10명(100%), '그렇지 않다'가 0명(00.0%), 보통은 '그렇다'가 0명(00.0%), '그렇지 않다'가 12명(100.0%), 불만족은 '그렇다'가 305명(80.9%), '그렇지 않다'가 72명(19.1%)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01$ ) <표 3>.

<표 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음주폐해 인식도

특성	구분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		p-value
		그렇다	그렇지 않다	
학년	1학년	98(66.2)	50(33.8)	0.000*
	2학년	133(91.7)	12(8.3)	
	3학년	25(41.0)	36(59.0)	
	4학년	49(57.6)	36(42.4)	
음주 시 몇 차까지	마시지 않음	61(71.8)	24(28.2)	0.000*
	1차	194(89.0)	24(11.0)	
	2차	50(58.1)	36(41.9)	
월 음주관련 지출 비용 (만원)	5 미만	292(83.0)	60(17.0)	0.000*
	5~10 미만	13(52.0)	12(48.0)	
	10 이상	0(00.0)	12(100)	
절주교육 및 홍보경험	있음	25(67.6)	12(32.4)	0.092*
	없음	280(79.5)	72(20.5)	
음주에 대한 후회	있음	135(69.2)	60(30.8)	0.000*
	없음	170(87.6)	24(12.4)	
음주로 인한 실수	있음	111(75.5)	36(24.5)	0.279*
	없음	194(80.2)	48(19.8)	
부모님의 음주문제	있음	50(67.6)	24(32.4)	0.012*
	없음	255(81.0)	60(19.0)	
음주폐해 감소 학교노력 만족도	만족	10(100)	0(00.0)	0.000*
	보통	0(00.0)	12(100)	
	불만족	305(80.9)	72(19.1)	

\*Chi-square test

#### 4. 음주폐해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음주폐해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유의한 변수는 음주 시 몇 차까지, 절주교육 및 홍보경험, 음주에 대한 후회, 음주 후 실수, 부모님의 음주문제였다. 음주 시 몇 차까지 에서는 2차가 가장 큰 요인이었다( $p=0.063$ ). 절주교육 및 홍보경험에서는 ‘있음’이 더 큰 요인이었다( $p=0.096$ ). 음주에 대한 후회는 ‘있음’이 더 큰 요인이었다( $p$

$<0.001$ ). 음주 후 실수는 ‘있음’이 더 큰 요인이었다( $p=0.280$ ). 부모님의 음주문제는 ‘있음’이 더 큰 요인이었다( $p=0.013$ ).

음주 시 몇 차까지 에서는 ‘마시지 않음’보다 ‘2차’가 1.83배 높았다. 절주교육 및 홍보경험은 ‘없음’보다 ‘있음’이 1.87배 높았다. 음주에 대한 후회는 ‘없음’보다 ‘있음’이 3.15배 높았다. 음주 후 실수는 ‘없음’보다 ‘있음’이 1.31배 높았다. 부모님의 음주문제는 ‘없음’보다 ‘있음’이 2.04배 높았다<표 4>.

<표 4>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특성	구분	OR	95% CI	p-value
음주 시 몇 차까지	마시지 않음	1.00		
	1차	0.31	0.17~0.59	0.000
	2차	1.83	0.97~3.46	0.063
절주교육 및 홍보경험	없음	1.00		
	있음	1.87	0.90~3.90	0.096
음주에 대한 후회	없음	1.00		
	있음	3.15	1.86~5.32	0.000
음주 후 실수	없음	1.00		
	있음	1.31	0.80~2.14	0.280
부모님의 음주문제	없음	1.00		
	있음	2.04	1.16~3.58	0.013

#### IV. 논의

여성의 음주문제는 사회적 구조가 바뀌고 여성의 지위가 변함에 따라 점점 더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그에 따른 정책과 방안이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Mangold 등, 2008). 한 편, 여성의 음주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됨에 따라 여대생들의 음주문제 또한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들이 갖는 사회적, 가족적, 생리화적인 여러 면을 고려해볼 때 그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들의 나

이, 학년, 경제적 수준, 대학의 노력, 절주교육, 홍보경험 등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이에 따른 연구와 해결 방안이 따라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van Zyl 등, 2015).

본 연구에서 대상자는 2학년이 가장 많았고 월 용돈에서 음주관련 지출 비용은 5만원 미만이 대부분이었고 절주교육경험은 거의 없었다. 대상자의 음주관련 인식은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음주폐해감소를 위한 학교노력 만족도도 매우 낮았다. 음주여대생들은 음주폐해에 대한 인식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절주교육 및 홍보에 대한 경험은 매우 낮았다. 조사 대상인 대부분의 여대생들은 음주폐해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반면에 음주를 많이 할수록 음주폐해에 대한 인식도가 낮은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1, 2, 3, 4학년별로 음주폐해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1학년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학년이 높았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음주폐해 인식도의 차이에서 학년별, 음주 시 몇 차까지, 월 음주관련 지출비용, 절주교육 및 홍보경험, 음주폐해감소 학교노력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런데 음주폐해에 대한 절주교육 및 홍보는 여전히 부족했고 더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연구와 대책이 필요하다. 대학이나 정부당국이 대학생들의 음주폐해에 대해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고려하지 않아 절주교육 및 홍보와 자료가 매우 부족했다. 음주폐해 인식도는 술을 마시는 횟수, 절주교육 및 홍보경험 유무, 음주폐해감소 학교노력만족도, 학년, 성별에 따라 달랐다.

절주교육 및 홍보경험이 '있다'가 9.5%, '없다'가 90.5%였는데, Kypri 등(2009)에서는 대학생들의 절주교육 및 홍보경험이 '있다'가 32.1%, '없다'가 64.3%, van Zyl 등(2015)에서는 대학생들의 절주교육 및 홍보경험이 '있다'가 30.9%, '없다'가 64.2%, 조현태(2015)에서는 절주교육 및 홍보경험이 '있다'가 34.1%, '없다'가 65.9%로 절주교육 및 홍보경험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김종규 등(2011)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절주교육 및 홍보경험이 '있다'가 34.4%, '없다'가 65.6%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대학과 당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절주교육 및 홍보가 시급히 필요하다. 음주폐해감소를 위한 학교노력 만족도는 '만족'이 2.6%였는데, 조현태(2015)에서는 '만족'이 14.1%, Kypri 등(2009)에서는 15.5%, van Zyl(2015)에서는 15.9%, 손애리(2014)의 16.5%, 이진주 등(2014)

은 16.2%, 심성욱 등(2009)에서는 15.9%였다. 따라서 대학생뿐만 아니라 여대생들의 음주폐해 감소를 위한 대학의 노력에 대해 학생들은 대부분 불만족한 생각을 갖고 있어 우선 대학에서의 음주폐해감소를 위한 노력과 대책이 필요하다. 음주폐해 인식도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78.4%였는데, 조현태(2015)에서는 음주폐해 인식도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61.9%, 이진주 등(2014)에서는 65.4%, Kypri 등(2009)에서는 60.2%, van Zyl 등(2015)에서는 63.2%로 학생들 스스로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음주관련 지출 비용에 따라서는 지출이 많을수록 음주폐해 인식도가 낮았고 절주교육 및 홍보경험을 할수록 음주폐해 인식도가 약간 높았는데 조현태(2015)와 이진주 등(2014)에서는 음주관련 지출 비용에 따라서는 지출이 많을수록 사회적 폐해 인식도가 낮았고 절주교육 및 홍보경험을 할수록 음주폐해 인식도가 높았다. 음주폐해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면, 유의한 변수로는 음주 시 몇 차까지, 절주교육 및 홍보 경험, 음주에 대한 후회, 음주 후 실수, 부모님의 음주문제였는데, 조현태(2015)에서는 유의한 변수는 학년, 음주 시 몇 차까지에서 마시지 않음보다 3차 이상 이, 절주교육 및 홍보경험 여부, 음주폐해감소 학교노력 만족도였다. 학년은 2학년이 가장 큰 요인이었고 음주폐해감소 학교노력 만족도는 보통이 가장 큰 영향 요인이었다. 손애리(2014)의 연구에서는 학년, 절주교육 및 홍보경험 여부, 음주폐해감소 학교노력 만족도이었고 학년은 2학년이 가장 컸고 음주폐해감소 학교노력 만족도는 보통이 가장 큰 영향 요인이었다. 이진주 등(2014)의 연구에서는 학년, 용돈, 음주 시 3차 이상이었는데 학년은 3학년이 가장 컸고 음주폐해감소 학교노력 만족도는 보통이 가장 큰 영향 요인이었다.

또 S시와 N시에 극한된 389명을 대상으로 한 점이 지역적으로나 대상자 선정의 측면에서 매우

부족한 점이 많았고 연구의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더 많은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 V. 결론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본 것처럼 여대생들의 절주교육 및 홍보경험이 부족한 것으로 보아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우선 대학의 적극적인 노력과 나아가 특히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당국의 절주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고 먼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자료가 준비되어야 한다. 음주폐해감소를 위한 학교노력 만족도도 매우 낮고 여대생들의 음주폐해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여대생들이 더 많아서 우선 대학이 여대생들의 사회적, 생리적 특성과 결혼, 임신의 연관성, 중요성 및 음주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대학 자체 내에서부터 해당 대학의 여대생들의 음주폐해 감소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절주교육 및 홍보경험이 없을 수록 음주폐해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으므로 절주교육 및 홍보가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 부모님 중 '부'의 음주가 여대생들의 음주관련 인식과 연관성이 있으므로 '부'에 대한 절주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 또 대학 내 동아리를 운용하여 여대생들의 음주폐해에 대한 자료 개발 및 홍보영상 상영과 설문지 조사, 홍보자료 배포를 통해 대학이 여대생들의 음주폐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절주동아리를 통해 학생회원과 지도교수가 협심하여 잘 운용한다면 음주폐해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지고 그 운용효과도 클 것이다. 음주폐해 인식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2차까지 술을 마시는 대학생, 절주 교육 및 홍보경험이 없는 대학생, 음주폐해감소를 위한 학교노력 만족도가 낮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더 많은 절주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1. 김승대, 김명관. 일부 대학생들의 음주량에 미치는 영향과 절주방안.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016;17(9):221-227.
2. 김영복. 우리나라 대학생의 지역별 음주 특성 분석. 한국알코올과학회지 2014;15(2):71-82.
3. 김정애. 대학생들의 문제음주 관련 요인 분석. 한국복지실천학회지 2014;6(1):58-70.
4. 심성욱, 손영곤, 이진우. 여대생 절주 캠페인 전략 수립을 위한 음주행동 영향 요인 분석. 한국광고홍보학보 2009;11(1):204-247.
5. 손애리. 여대생의 음주와 성역할고정관념이 성경험에 미치는 영향. 한국알코올과학회지 2014;15(2):103-110.
6. 양광식. 대학생들의 음주 및 주취폭력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한부모가정학회지 2014;7(1):43-72.
7. 이진주, 안소라, 박현아, 문서혜, 홍인표, 김수빈, 김소희, 권예린, 김은엽. 대학생들의 음주폐해에 대한 인식도. 한국산학기술학회 학술대회 2014:740-741.
8. 전현진, 정슬기. 여성 직장인의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008;25(3):21-43.
9. 조현태. 일부 지역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음주행태와 그 영향 요인. 한국학교·지역보건교육학회지 2014;15(2):13-22.
10. 조현태. 일부 도시 지역 간호 대학생들의 음주폐해 인식도. 한국학교·지역보건교육학회지 2015;16(2):59-67.
11. 최은진. 음주폐해 및 인지도 조사 지표 개발. 보건사회연구 2008:131-149.
12. 최정화, 노기영. 사회적 규범 인식, 평가 성향, 음주의 사회적 편익인식이 대학생들의 음주행위에 미치는 영향. 홍보학연구 2016;20(3):60-83.
13. Angove R, Fothergill A. Women and alcohol: Misrepresented and misunderstood. *Journal*

-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03;10:213-219.
14. Brienza RS, Stein MD. Alcohol use disorder in primary care: Do gender-specific differences exist?. *Journal of General Internal Medicine* 2002;17:387-397.
  15. Homilia M, Raitasalo K. Gender differences in drinking: Why do they still exist?. *The study of Addiction to Alcohol and Other Drug* 2005;100:1763-1769.
  16. Hope A. Alcohol's harm to others in Ireland. Dublin: Health Service Executive. Retrieved from <http://www.drugs.ie/resourcesfiles/ResearchDocs/Ireland/2014/ah20report.pdf>.
  17. Karriker-Jaffe KJ, Greenfield TK. Gender differences in associations of neighborhood disadvantage with alcohol's harms to others: A cross-sectional study from the USA. *Drug and Alcohol Review* 2014;33:296-303.
  18. Kinney J. Loosening the grip: a hand book of alcohol information. McGraw-Hill, 2003.
  19. Kypri K, Paschall MJ, Langley J, Baxter J. Drinking and alcohol-related harm among New Zealand university students. *Alcoholism* 2009;33(2):307-314.
  20. Laslett AM, Room R, Ferris J, Wilkinson C, Livingston M, Mugavin J. Surveying the range and magnitude of alcohol's harm to others in Australia. *Addiction* 2011;106:1603-1611.
  21. Mangold F, Sommers M, Kent G, Fargo J. Harmful drinking, depression, and conduct disorder among females involved in alcohol-related motor vehicle crashes: A secondary analysis. *Journal of Addictions Nursing* 2008;19(1):9-15.
  22. Pfefferbaum A, Rosenbloom M, Deshmukh A, Sullivan EA. Sex differences in the effects of alcohol on brain structure.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2001;158:188-197.
  23. Room R, Babor T, Rehm J. Alcohol and public health. *Lancet* 2005;365:519-530.
  24. Room R, Ferris J, Laslett AM, Livingston M, Mugavin J, Wilkinson C. The drinker's effect on the social environment: A conceptual framework for studying alcohol's harm to others.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2010;7:1855-1871.
  25. Schweinsburg BC, Alhassoon OM, Taylor MJ, Gonzalez R, Videen JS, Brown GG, Patterson TL, Grant I. Effects of alcoholism and gender on brain metabolism.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2003;160:1180-1183.
  26. van Zyl, Paulina., Botha, Julie., van Wyk, Michelle. Hazardous, harmful and dependent drinking in hostel-dwelling students at the University of the Free State, Bloemfontein: a cross-sectional study. *Journal of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2015;27(2):125-133.